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완공식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가나메 이케다 ITER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내외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학한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미래 에너지 자립국을 향한 도전의 현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핵융합연구장치, KSTAR를 우리의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한 것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보여 주는 쾌거입니다. 아울러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손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자리를 축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열정과 끈기로 오늘의 성공을 이루어낸 핵융합 연구진 여러분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참석자 여러분,

2003년에 제가 직접 주재한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가 열렸을 때, 위원회가 결

정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한 정책은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전체 수요 에너지의 40% 이상을 초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가 하라' 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원자력 에너지를 제외한 에너지 조달에 대안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회의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 본 결과로도 그 점은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에너지 비중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자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언제나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국민의 결정으로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유지하는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번 독일에서도 진보주의 정당과 보수주의 정당 사이에서 대연정을 합의할 때 에너지정책에서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합의의 중대한 조건으로 포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 수준과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고, 폐기물 처리와 관리에 관한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원자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와 같이 비싼 유가에도 불구하고 버텨 주는 것은 참으로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밝은 미래의 전망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핵융합 에너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해답을 확신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

람들이 이제 핵융합이 실용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설사 비용을 상당히 비싸게 치르더라도 인류 미래에 대해서 아마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문명을 바꾸어 왔다고 믿습니다. 그 기술의 발전이 정치를 비롯한 모든 사회제도를 바꿔 나가고, 사람의 의식까지 바뀌어 나가는 변화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학기술 발전이 전 지구의 인간을 동시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힘, 위험한 힘으로 존재하게 될 때 과연 인간이 과학기술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도덕적 역량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하나 걱정이었고요. 또 하나 걱정은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데 인간의 욕구를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소위 탄소 배출을 통제하는 것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 것인가, 인간의 절제가 어느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토협약에 대해서 한국도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전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핵융합 에너지야말로 이와 같은 의문 전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핵융합 기술이 실용화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인간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지 않고 항구적인 삶을 이 지구상에서 영위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판단을 바꾸어 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바로 핵융합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KSTAR의 완공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한국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첨단을 함께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인류를 위한 앞서가는 사람들의 책임에 한국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우울하고 불행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가슴 뿌듯

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라지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가 달라지는 그 현장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 있습니다. 참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도 생색을 조금 내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아니고 12년 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문민정부에서 에너지 관련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원 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까 연구소장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외환위기라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연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정말 세 개 정부 모두가 믿음직스러운 정부인 것 같습니다.

결정은 문민정부에서 했는데, 돈을 제일 많이 낸 것은 참여정부인 것 같습니다. 1,4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고, '핵융합 에너지 개발 진흥법'을 제정해서 국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KSTAR 경험을 토대로 ITER 사업에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핵융합 에너지 강국의 입지를 다져 왔습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말씀까지 다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원고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 KSTAR 완공에 이르기까지 기술 개발에 밤낮없이 땀 흘려 오신 연구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박수를 보내자고 제의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